(수사지도과)

진 술 서 (1회)

본적 [illegible]

주소 [illegible]

[illegible]

柳 時 敏 (1959. [illegible] 生)

1. 저는 일전에 미처 진술하지 못한 사항이나 잘못된사항, 불명확한 사항을 상세히, 잘못을 수정하고 명확하게 진술코저 합니다.

1. 저는 3월 10일 경 오후 1시에 7동 102호 강의실에서 개최된 경제학과총회에서 경제학과 과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총대의원회의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였읍니다.

1. 1980. 3. 15 경 오후 2시 쯤 사회대학생회실에서 사회대대의원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안건은 아마 신입생환영 체육대회 개최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때 현 서울대 총학

(수사지도과)

생회장인 심재철이 찾아왔읍니다. 총학생
회칙상 총학생회장은 각과대표및 계열대표
124名으로 구성되는 총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
로 뽑게 되어있었고 입후보 요건으로 최소한
10名 이상의 대의원 추천서를 입후보마감
시간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었으므로 심재철이 사회대 대의원
들의 추천을 받으려 사회대학생회실로 찾아
온 것이였으며 그냥 추천할 수는 없는 일이
어서 몇마디 질의응답을 해보았는데 그때
심재철은 써클활동의 자유, 학내언론자유,
집회의 자유 등 "잃어버린 권리의 회복"을 모
토로 삼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저와
심재철의 첫 대면이였읍니다. 그후 3월
28일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금전
수수, 음식·술대접 등은 전혀 없었으며

(수사지도과)

선거유세할 때만 청중속에 섞여 심재철이 연설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심재철은 3월 24일과 27일 양일간 오후 1시 아크로폴리스에서 연설하였는데 그의 모토는 교내의 언론·출판·집회 등의 자유회복과 유신잔재청산, 대학문화혁신의 3가지였다고 알고 있읍니다.

1. 3월 18일경 사회대 대의원회의를 하는 도중 사회학과 대의원인 유현오, 정치학과 대의원 김종명, 외교학과 대의원 전상훈 등이 "사회대는 대의원 수도 11명으로 많고 하니 총대의원회의장을 우리 사회대에서 배출해보자. 사회대에서는 항상 경제학과가 제일 규모도 크고 리더격이니 유시민을 후보로 내어보자."고 주장하였고 총학생회칙상으로 볼때 총

(수사지도과)

대의원회의는 그리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학기초와 학기말 그리고 선거할 때 열리므로 그리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지도 않고 대학생활의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 저도 승낙하였읍니다.

1. ① 3월 29일 13:00부터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열린 제1회 총대의원회의에서 총학생회장선거가 있기 직전에 총대의원회의장 선거가 있었읍니다. 총대의원회의장은 총학생회장과는 달리 실무나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장이 너무 독단적이거나 부정이 있을때 총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학기초와 말에 예산및결산 심의·승인을 위하여 총대의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그 주임무이므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선거유세나 합동연설회 없이 그자리에서 출마하여 약 20분만에 선출되었읍니다. 저는 그때 공대 조선 공학과 대의원인 이원태군과 경합한 끝에 80:31로 당선이 확정되었고 약 5분간의 소견발표에서 저는 "학생회는 순수한 학생자치기구이며 우리는 단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세력으로부터 학권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수호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한 바 있읍니다.

② 같은 날 동의장선출이 끝나고 나서 총학생회장선거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공대의 양 자청후보가 사퇴하였으므로 총인원 124명 중 114명이 투표한 이 선거에서 심재철(사대 영어과 4)

(수사지도과)

이 김기달(치대 본과4) 후보를 921:22로 누르고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읍니다.

③ 이날 선거가 끝난후 인문대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된 병영집체훈련 거부 결의문이 총대의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저는 그것을 다음번 총대의원회의의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그날 토론에 붙이지는 않았읍니다.

인문대 결의문의 내용은 「병영집체훈련제도는 군체제의 산물이며 군사훈련은 교련교육만으로 충분하므로 학원병영화의 철폐를 위하여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요지의 것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1. 4월 2일경 오후 2시쯤 대학본부 학생

(수사지도파)

처장실에서 학생처장 이수성 교수님을
만났을때 총학생회칙 중 제9조 6호
"학칙개정 발의 및 사전동의권" 제9조12호
"학교관계 당국자의 출석요구". 제12조9호
2중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등 3귀절이
명백히 교권과 학사행정권을 침해한
다는 이야기를 이수성 교수가 하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총대의원회의에서
이 대목을 개정할테니 학처장회의에서
총학생회칙을 승인하여 달라고 하자 이수
성 교수님은 "개정후면은 승인이 가능하다"
고 하셨읍니다.

1. 4월 9일 19:00~22:00 신촌로타리부근
중국집인 "청원"에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의 총학생회장단이 모여 회의

을 하였는데 이 회의는 서강대 총학생회에서 주최 및 주도하였고 서강대 총학생회장 박성혁이 사회를 보았읍니다. 이 회의에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제가 참석하였읍니다. 회의 내용은 성균관대학교의 병영집체훈련거부 상황보고와 협조책강구, 경희대·세종대등 사립대학의 재단부조리문제로 인한 학원사태에 대한 이야기 등 2가지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타학교가 동조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이 문제는 성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의 공통과제이므로 성대가 십자가를 진 셈이니 도와달라." 고 하여 성대의 병집거부 결의문에 서울대·연대·서강대의 총학생회장들이

공동으로 서명하였읍니다.

1. 4월 10일 오후 2시 8동 103호 대형 강의실에서 개최되어 오후 8시 30분경에 폐회한 제2차 임시총대의원회의에서

① 4월 2일 학생처장 이수성 교수가 교권 침해로 규정한 제9조 6호 "회칙개정발의 및 사전동의권"을 "학생권익에 관한 학칙 개정 건의권"으로 수정하고 제9조 12호 "학교관계당국자의 출석요구"는 삭제하였고 제12조 9호중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을 "학생권익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때 참석대의원은 79명이었읍니다.

② 동회의에서 총학생회 각 부장 즉 문예부장 권혁철(공대 전산과 4). 사회부장 허남철(인문대 철학과3). 총무부장 이용

화 (자연대 계통과 3), 체육부장 박명기 (사대 체육과 3),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 (사회대 정치학과 4)을 인준하였으며 4월혁명기념제 및 4월 가예산을 심의 승인하였읍니다.

③ 3월 28일 제 1차 총대의원회의 당시 인문대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병영집체훈련 거부 결의안을 67명의 대의원이 있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총대의원회 의장인 제가 결의문 작성 및 인쇄를 위임받았읍니다.

④ 저는 같은날 총대의원 회의가 끝난 후 총대의원회 사무국에서 약 10시까지 결의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3.4~~ 4월 11일 10:00경 사범대학 지학과 대의원인 황원기에게 8절지 사험

(수사지도과)

지에 깨끗이 쓰게한후 「4월혁명 기념제」 포스타 및 프로그램 인쇄를 위해 마침 학교에 와있던 대한인쇄소 업자에게 부탁하여 2000 매를 제작 하였으며 대의원들을 통하여 주로 관악 캠퍼스에 있는 1학년들에게 배포하였읍니다. 이때 비용은 3만원이였으며 1학기 총대의원회 예산 70만원중 일부 총무부장 이용화군으로부터 지출받아 충당 하였읍니다. 대한인쇄소의 전화번호나 출입업자이름은 저로서는 알지 못하며 주로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에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 4월11일에는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① 관악캠퍼스에서는 10:00 ~12:00 사이 총학생회 발족기념식, 복교복직 환영식및

"고 김상진 열사" 추도식을 겸한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사회를 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식의 진행이 늦어지자 수원농대 캠퍼스에서 12:30경부터 열릴 예정이던 "고 김상진 열사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 심재철 및 부회장 김학진은 식이 끝나기 15분전인 11:55경 수원으로 먼저 출발하였고 저는 끝까지 사회를 보았는데 12:10경 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학생들에게 "수원으로 갈 사람은 지금 본부앞에 있는 스쿨버스에 탑승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때 우리 복학생 한명이 와서 모든 학생이 다 수원으로 가기에는 버스 15대로는 부족하니 남은학생들끼리 사후 대회를 하게 마이크를 넘겨달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총학생회장도 없고 원래 계획에도 없는 순서이니 나서는 어쩔수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마이크·스피커 등을 철거시켰읍니다. 그런데 그 복학생이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를 비난했기 때문에 저도 "뭐 잘못한게 있느냐?"면서 약 5분간 다투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복학생이 바로 학기초부터 "민청협" 회장이고 김대중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사회학과)이었읍니다.

② 마이크나 스피커 설치는 학생회 간부들이 본부나 총엠프실에 부탁하면 언제든지 설치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학생처장의 지시가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수사지도과)

③ 저는 14:00경 스쿨버스로 수원농대로 가서 18:00까지 "故김상진 열사 장례식"과 발인을 보고나서 수원농대에서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자기는 제주이므로 일찍 나갈수 없으니 19:00까지 중국집 "청원"에서 있는 총학생회장단 회의에 가보라고 하였으므로 18:00경 학교를 나왔읍니다.

④ 19:00 ~ 22:00 중국집 "청원"에서 서울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성신여대·숙명여대·숭전대 등 학교의 총학생회장단이 모여 회의를 열고 성균관대학교의 병영집체훈련 거부농성 상황을 보고 받은후 역시 사립대학 족벌재단 문제에 대해 경희대를 위한 연대운동등을 하자는 제의가 나왔으며 이것은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활

동위원장인 이홍동(정치과 4)이 제의한 것입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은 타대학도 같이 교내시위. 농성을 시작하여 병집거부농성을 하고 있는 서대와 보조를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다른 대학은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읍니다. 이때 서울대에서는 저와 총학생회장 심재철.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이 참석하였고 심재철은 21:00경에 도착하였으며 사회는 누가 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모인것은 4월 9일 폐회시의 약속에 따른 것이었읍니다.

1. 4.12. 19:00~22:00 중국집 "청원"에서 4월11일의 회의 끝에 한 약속에 따라서

(수사지도과)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숭전대·
동국대, 이대·숙대·성신여대 등의 총
학생회장단이 모여 회의를 열었으며
숭전대 총학생회장 윤여연이 사회를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참석치 않고
서울大에서는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학생
활동위원장 이홍동만 참석하였으므로
저는 회의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립대학의 족벌재단의 반성을 촉구하는
9개대학 공동성명서가 채택되었으며 그
초안은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이 한것으
로 알고 있읍니다.

1. ① 4. 16. 19:00 ~ 22:00 중국집 청원에서
서울大·서강대·연대·성대·건대·이대·
숙대·서울여대 등의 총학생회장단이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수사지도과)

심재철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4.14 최규하대통령 특별담화에서 정부가 학원사태를 계엄연장의 이유로 든데 대해 그리고 신현확국무총리가 또 유사한 발언을 하고 정부가 개헌주도를 해야한다는 기자회견을 한데 대해 시국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후 성명서 초안 작성을 서울대에서 일임받은후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에서 모여 초안을 검토한후 오후 5시에 발표하기로 하였읍니다. 서울대에서는 심재철과 제가 참석했읍니다.

⑵ 회의가 끝난후 저는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함께 원풍아파트의 그의 누님댁으로 가서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심재철이 "비상계엄 해제" "정부주도 개헌 반대". "언론자유 보장" 등의

항목을 생각해내어 제 의견을 물었고
제가 거기에 동의하자 그중 "정부개헌
반대" 문제는 제가 초안하였으며 "상계엄해
제" 문제는 심재철이 초안하였으며 "언론
자유보장"은 심재철이 쓰다가 저에게
넘긴것을 제가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것을 8절지에 베껴쓴
저는 연대로 가는 길에 14:00시경 고우 앞 복사
실에서 20부를 복사하였습니다.

1. 나웨17일 15:00경 연세대학교 총학생
회장실에서 서울大·연대·고대·성대·서강
대·건대·숭전대·동국대·이대·숙대·
성신여대·서울여대·등의 총학생회장단이
모여 제가 복사해온 초안을 검토한후 자구수정을 하여 다시 연대학생회
에서 약 30부를 제목을 인쇄하여 기자
들 약 10명 (동아·조선·합동통신·문화방송

등의 기자)과 학생회장들에게 배포하였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광호가 성명서를 낭독하였으며. 성명서의 제목은 "현시국에 대한 공동성명서"였고 내용은 비상계엄에 대하여. 헌법개정에 대하여, 언론자유에 대하여 등이었으며 바로 비상계엄해제. 정부주도개헌반대. 언론자유보장등을 주장하는 것이었읍니다. 이 성명서는 일반학생에게는 배포하지 않았읍니다

1. 4월19일에는 4.19 20주년 행사가
① 10:00 ~ 11:00 우천관계로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열렸으며 약 1000여명의 학생들과 총장, 부총장. 학처장등 약 15분이 참석하셨고 총장 고병익 교수는 기념사에서 「이렇듯 떳떳하게 4.19 행사를 학생들과 함께 개최할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였고 학생처장 이수성교수는 4.19 당시의 60.4.25 교수단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였읍니다. 이것은 총학생회장 심재철군의 부탁에 따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4.19 제 20선언」이란 유인물을 자신이 작성, 집행부를 시켜 인쇄하여 기념식장의 기자들과 학생들에게 배포한뒤 자신이 식장에서 낭독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국의 현대사는 4.19 정신과 그것을 죽이려는 자 사이의 투쟁의 기록이며 지금도 반민족와 민족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반드시 민족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이였읍니다.

② 기념식이 끝난후 약 1000여명의 학생들과 10명의 교수들은 (즉 부총장,

학생회장, 교무처장, 학장등)은 스쿨버스와 전세버스 28대를 타고 4.19 묘소를 참배하였으며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오후 2시30분경 「4.19 제20선언」을 묘지의 탑아래에서 다시 한번 낭독하였읍니다.

1. 4월 23일 22:00시 경 봉천동 소재 세운여관에서 총학생회장 심재철
총학생회 부회장 김학진 (고선공학 3)
사범대 학생회장 진영효 (교육학 3)
자연대 " 배명규 (· 3)
공과대 " 양점식 (3)
약학대 " 김대중 (제약 3)
사회대 " 유승호 (경제 3)
등과 제가 같이 모여 병영집체훈련거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므로 총학생회장
심재철의 말에 따라서 한쪽 구석에서
하늘색 볼펜으로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초안하였읍니다.
제가 이 유인물을 초안하는 동안 운영위
원들은 병영집체훈련기간인 5월 4일
에서 5월 13일 사이에 학교에서 정상수업을
해주지 않더라도 학생들끼리 3·4학년이
1학년 반으로 들어가 교양세미나를 한다
거나 학술토론대회를 단과대학별로 계획
준비하기로 합의를 보고 공대 학생회장
양정식군의 제의로 학교에 정상수업을
요구하기로 하고 또 약대 학생회장
김대중군의 제의로 학교에 개별입소통지서
를 발송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로 하였읍니
다. 한편 총학생회장 심 재철은

(수사지도과)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별로 좋지 못하다. 우리도 괜히 이문제를 꺼낸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부에 말려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읍니다.

저는 이 유인물 초안을 동월 24일 09:00시경 총학생회장의 책상위에 놓아 두었고 그것을 운영위원들이 약 2500부를 인쇄하여 단과대학별로 나누어서 1학년들의 가정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4. 25경 학생처장실에서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학생처장 이수성 교수가 만나 문제가 되고 있던 병영집체훈련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적이 있는데 이때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학교에서 개별 입소통지서를 발송하지 말것과 입소

(수사지도과)

기간인 5.4 ~ 5.13 열흘동안 1학년에 대해 정상수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중 개별입소통지서를 학교측에서는 발송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었고 정상수업 관계는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1. 4.28. 15:00 ~ 18:30. 종로 한일관에서 서울시내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가 열렸는데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이 참석하였고 본인은 참석치 않아 참석한 학교나 주도한 사람등 자세한 것은 알기 어려우나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5월이 들어가면 학원의 이슈를 교내문제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확산시키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 4월 30日. 11:00경 저는 수원 농대에서 어용교수문제로 교내시위가 4월 28일부터 일어났고 급기야 30일에는 학교를 점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놀라 수원농대로 출발하였읍니다. 약 13시 30분경 농대에 도착한 저는 오후에는 원인과 상황등을 파악해보고 나서 19:00시 ~ 5월 1일 03:00시까지 열린 평교수협의회와 학생회의 회담에 같이 참석하여 사태를 파악한 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려면 어용교수로 지목된 농교육과 송해균등 세교수가 물러나거나 학생들이 농성을 끝내야 하는데 어느 한 쪽도 양보할 것 같지가 않았읍니다.

저는 농대학생회장 채정석에게 "농성을 장기화시키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권유

한후 5월 1일 11:30경 수원농대에서 출발하였읍니다.

1. ① 5월 1일 약 14:00시 조금 지났을 경 저는 관악캠퍼스에 다시 도착하였는데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약 2000명이 모여 앉아 있었읍니다. 저는 도착즉시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사먹은후 총학생회장실로 올라가 부회장 김학진군으로부터 병영집체 입소여부를 놓고 1일째부터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말과 아크로폴리스에 모인 학생들이 복학생 약 300명 외에 대부분이 복학생들의 시국성토대회를 구경하는 일반 재학생들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후 사회를 본사람이 박우섭(자연대 미생물학과)이며 그가 사회, 구호선창, 데모지휘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들은 14:30시부터

16:00 사이 아크로폴리스와 교문사이의
진입로를 왕복하면서 "계엄해제" 등의 구호
와 전두환, 신현확 퇴진을 요구하는
교내시위를 벌였읍니다. 저는 그것을
구경하지 못했으므로 무엇이 무언지 자세히는
모르나 이날 복학생총회에서의 사국선포와
교내시위가 다음날부터 정치문제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고조된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
고 그에 따라 학생회는 끌려다닐수 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② 이날 즉 5월 1일 18:00부터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총학생회장 심재철 (사대 영어과 4)
부회장 김학긴 (공대 조선공학 3)
인문대 학생회장 노창준 (동양사 3)
사회대 " 유승호 (경제 3)

(수사지도과)

경영대 학생회장 정 철상 (경영3)

법대 〃 이 철수 (법3)

사범대 〃 진 영효 (교육3).

공대 〃 양 점식 (3년)

약대 〃 김 대중 (3년)

자연대 〃 배 명규 (3년

가정대 〃 김 경미 (의류3).

미대 〃 박 종철

총여학생회장 이 재인 (교육3).

그리고 저 등이 있을 때 18:00시

조금 넘어 연성만 (人文大), 심 상완

(사회학과), 오세중 (철학과) 등 복학생

6명 정도가 들어왔고 이때 심재

철은 방문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별로 놀라는 기색없이 "어서 오소" 하고

인사를 한번 보아 복학생과 심재

철 사이에 미리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명목상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사회를 보았으나 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간 사람은 연성만(외대)이
있으며 심상정 등 다른 복학생들도 다들 "병영집체
훈련을 거부한채 민주화투쟁을 벌이면
우리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여론이나 국민
들의 인식이 악화되므로 병영집체훈련
거부는 깨끗이 철회하고 5월 2일부터는
교내시위를 벌이면서 비상계엄문제를 이슈화하자"는 주장을
하였는데 처음에 경영대 학생회장
정철상, 사범대 학생회장 [illegible] 진영효
등이 반대의 뜻을 보였으나 결국 설득당
해 복학생들의 주장에 동조하였읍니다.
이때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약 22:00
경 이것을 먼저 신문에 발표할 것인가

발견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다른사람들
즉 운영위원의 아닌 저나 복학생들을
별방인 장행부실로 퇴장시킨후 운영위원
들끼리 약 23:30 까지 의논한 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5월 2일 02:00경
한국일보등 신문기자들에게 발표하였읍니다.
또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여러개의
구호를 단과대학으로 배당하여 주었는데
예를들어 「비상계엄해제하라」는 사범대,
「노동삼권보장하라」는 경영대, 「정부개헌
중지하라」는 법대, 「유신잔당물러가라」
는 가정대에… 이런 식으로 각 단과대학
별로 구호를 하나씩 나누고 각 과별로
그 내용은 자유롭게 피켓 하나씩을 준비하
기로하였읍니다. 이 비용은 모두 학생회
비 및 과회비로 충당하였다고 알고 있

(수사지도과)

읍니다.

③ 운영위원회의 이 결정은 4월 10일 총대의원회의에서 가결한 병영집체훈련 거부결의안과는 상호배치되는 것이므로 운영위원회는 의장인 저에게 총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읍니다. 총학생회칙상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하면 총대의원회 의장은 반드시 총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토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 5월 2일 12:00시 부터는 민주화대총회와 11:30부터는 총대의원회의가 각각 아크로폴리스 광장 및 학생회관에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 ① 5월 2일 10:00부터는 각 과별 반별로 과총회, 반총회를 열어 병영집체훈련 입소

880-5114
8715

(수사지도과)

설득작업을 대의원. 학생회간부들이 벌이고난 12:00 인문대로부터 입장하기 시작하여 하얀 가운을 입은 600여명의 남녀 의대생들이 마지막으로 「계엄해제」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입장하고 난 아크로폴리스 약 1300평의 광장은 12,000여명의 학생들로 꽉 차버리고 말았다. 이때 같은 시간 저는 총대의원회의를 열고 있었으므로 자세히 보지는 못했으나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사회를 보면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였으며 구호를 선창하고 교내 순환도로를 일주하는 민주화 대행진을 총지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때 낭독한 시국선언문은 총학생회장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으나 5월 6일자 대학신문에 전문이

게재되었으며 내용은 역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하여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어야 하며 언론검열제도등의 모든 비민주적인 요소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② 저는 11:30부터 학생회관 2층 다목적(?)에서 운영위원회의 독선적인 등교결정을 지지할 것이나 아니냐를 의제로 운영위원회 요구로 개최된 임시총대의원회의를 하다가 밖이 시끄러워 26동 대형강의실로 12:30경 옮겨 14:30까지 회의를 한 결과 96명의 참석자중 77명의 찬성으로 총대의원회의가 4월10일에 결의한 바 있는 병집계획을 철회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였읍니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운영위원회의 독선을 비판하면서도 총대의원회가 그 결

전사항을 부인하면 학생회가 두 쪽이 난다는 생각때문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③ 이날 14:00시 ~ 17:00시사이 3시간에 걸쳐 교내 순환도로를 12,000명이 일주한 민주화대행진은 그 코스가 아크로폴리스 → 진입로 → 교문앞 → 기숙사앞 → 교련장 → 4.19탑 → 아크로폴리스의 순서였고 연극반의 징과 꽹가리가 힘차게 울리고 각 단대별로 하나씩 15개의 플래카드와 각 과마다 준비한 100여개의 피켓을 앞세우고 그 앞뒤 행렬의 길이는 거의 1.5km 정도에 달하였고 각 단과대학 별로 4.19 탑에 묵념을 드린후 아크로폴리스로 집결하였읍니다.

④ 이때까지 지휘는 모두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맡았으며

(수사지도과)

대행진이 끝났을때 인원은 6000명 정도였는데 19:00시경 이 6000명의 학생이 다시 교문앞으로 집결하였고 이때부터 약 21:00시까지 「비상계엄해제」 「신현확 퇴진」 「전두환퇴진」 「언론자유보장」 등을 주제로한 자유성토가 있은후 약 21:00경 학생활동위원회 (위원장: 이홍동, 정치4)에서 준비해온 2개의 짚독가시에 신현확, 전두환의 이름을 써서 교문에 매단후 석유를 끼얹고 불을질러 화형식을 가졌읍니다. 이 화형식 준비는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 군의 지휘하에 이루어 진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이때 사회를 보았읍니다.

⑤ 철야농성을 하기위하여 다시 21:00시경 아크로폴리스광장에 모였을때 인원은 약 3000명 정도되었으며 식당에서 단대별로

차례차례 저녁식사를 한후 역시 단과대학별로 도서관 6개 방과 학생회관을 이용하여 철야농성을 시작하였고 농성시 토론의 주제나 구호의 내용은 낮시의 때와 동일한 것이었읍니다.

⑥ 매날 17:00경 학생 6000여명이 다시 아크로폴리스에 집결하고 있을때 총학생회장 심재철, 부회장 김학민, 그리고 저와 그외 2명정도의 학생회간부들이 앞에 모여있는데 이해찬, 심상환 등 3~4명의 복학생들이 콜라 5~6잔을 사왔고 그중 이해찬이 저에게 콜라를 주었으므로 제가 4월 11일 일도 있고 해서 화해하는 그가 먼저 인사를 청하고 악수를 했는데 그때서야 저는 바로 그가 이해찬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제가 "일전에 다툰일은 미안

합니다."고 사과하자 ~~그는~~ 이 해찬은 "일을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는일이라"면서 수고가 많다고 격려해주었읍니다.

1. ① 5월 3일 오전에는 역시 전날과 동일한 구호를 외치며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 및 교문앞에서 시위, 연좌하였으며 다음날 군부대에 입소할 1학년생들을 입소준비할 시간을 주기위해 약 15:00경에 박수를 치면서 교문밖으로 내보내 1학년 약 1천여명은 그때 귀가하였읍니다.

② 이날 13:00경 아크로폴리스에 약 4000여명의 학생이 운집해 있을때 부터 5월 2일 오후 2시경 4동 대형강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학부학생들의 교내 시위및 철야토론대회에 같은 과의 학부학생들에 섞여 약 500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하여 죽 같이 행동하였읍니다.

③ 15:00시경 1학년을 내보낸후 약3000여명이 교문앞에 연좌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과도입정단축. 언론자유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성토대회를 벌였으며 이때 사법대학 학생회장이 사회를 보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정부개헌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였으며 18:30경, 교문앞 성토대회를 마치고 다시 도서관과 학생회관에서 동일한 주제로 철야농성을 벌였는데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각 단대별 농성장에서 자기 단과대학소속 학생들을 지휘하였고 이때 농성인원은 약 2000여명 되었으며 21:30분경 고병익 총장님이 농성장을 둘러 보겠다는 전화가 학생처

장 이수성교수로부터 총학생회장실로 걸려 왔으므로 제가 안내하고 총장 고병익교수,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단과대학 학장 등 약 십여명이 농성장인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둘러보았으며 이 때 총장님은 그냥 농성장에 들어가셨고 그러면 학생들은 박수를 쳤으며 총장님은 답례로 손을 잠깐 들어 보이는 정도였으므로 약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읍니다.

⑭ 이날 밤 총연극회 학생 약 10여명은 23:00시경 도서관과 학생회관에서 농성학생들이 보는 앞에 궁정동 사건을 풍자한 연극을 하였읍니다만 저는 그 학생들의 이름은 알수 없고 각 써클은 문예부 소관이므로 문예부장 권혁철(공대 건산3)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①5월 4일 오전 10:00시 부터 교문앞에서는 일학년 병영집체훈련 환송식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1학년생 약 2500명과 일반 학생 약 3000여명등 5000~6000여명이 운집하였읍니다. 이때 사회를 본 것은 인문대 학생회장 노창준(동양사3)이였고 그는 환송식이 시작하기 직전 "정의가" 등의 노래를 선창하였고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기도 하였읍니다. 여기서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환송사"에서 "보다 큰 민주화 투쟁을 위하여 입소하는 일학년에게 감사한다."고 했으며 학생처장 이수성 교수는 이때 일학년들에게 "민주화를 바라는 열망은 학생 교수 모두가 꼭같은 것이다. 대학의 파국을 막아준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말하였읍니다.

② 13:00경 환송식이 끝나고 1학년들이 탑승한 버스가 교문을 나설때 양쪽에 늘어선 3000여명의 학생들은 애국가를 불러 주었으며 버스에 탄 1학년생들은 "정의가" 등의 노래와 "비상계엄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떠났읍니다.

③ 1학년들을 보내고 약 3000명의 학생들은 다시 아크로폴리스에 집결하여 농성해제식을 가진후 15:00경 농성을 해제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 농성해제식에서도 저는 목이 쉬어서 못하고 인문대학생회장 노창준이 사회를 보았으며 애국가를 부른후 해산했는데 같은 시간에 교문앞에 있던 2000여 명의 전투경찰도 철수하였읍니다.

④ 같은날 18:30경 총학생회장 심재철 학생활동 위원장 이홍동, 부회장 김학진,

(수사지도과)

문예부장 권혁철과 제가 같이 봉천동의 한식집(한식집이름 미상)에서 생선찌게와 파창을 시켜 저녁식사를 하고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는데 저는 이때 위나 나빠 있었으므로 술은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고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그동안 모두들 수고했다."면서 격려해주고 식사대 약 15,000원도 자기가 지불하였는데 그 돈의 출처는 알지 못합니다.

1. 5월 2일~4일간의 농성기간중 특히 중요한 것은 5월 1일밤 갑자기 병영집체훈련 응소 결정을 내린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고 궁지에 몰려 있던 5월 2일 12:00시부터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일만 이천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민주화 대총회 중 김부겸(복학생, 정치학과 4.)이 아주

탁월한 웅변력으로 "민주화투쟁을 위해 응소키로 한 총학생회의 결정은 아주 훌륭한 것이였다"는 요지의 연설을 함으로써 일만 이천 학생을 멋지게 설득하고 위기에 처한 총학생회를 구출해 주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많은 복학생중에서도 김부겸씨에 대하여서 가장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총회가 끝난후 "김부겸형이 학생회를 살려주었다"라는 심재철의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일도 있읍니다.

1. 위 기간중 농성비용으로 사용된 자금은 모두 총학생회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며 특히 식사비는 제가 알기로 약 250만원정도나 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5월 9일 농성이 끝난 후인 16:00경 총무부장 이용화 군으로 부터 들은 사실이 있읍니다.

(수사지도과)

1. 5월 6일 오후 2시 4동대형강의실에서 저는 임시총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총원 137명 중 약 100명이 참석하였고 여기에서는 우선 농성비용등으로 학생회비가 너무많이 지출되었으므로 1000원씩의 추가회비를 1인당 징수하여 민주화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 가결되었고 운영위원회의 독선을 막기위하여 운영위원 18人, 의장단(총대의원회 의장과 단대의장) 16人, 복학생 7人 이내로 구성되는 민주화투쟁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복학생은 표결권이 없이 고문으로 참석케 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1人당 1,000원씩의 회비는 각 과별로 걷는 중이었고 민주화투쟁위원회(가칭)는 복학생들의 불참통고와 의장들의 저조한 참석율로 인하여 결성조차되지 못하였

읍니다. 복학생들은 불참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고 단지 그런식의 가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란 이야기를 5월 7일경 총학생회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읍니다.

1. 5월 7일 15:00 ~ 5.8 10:00시 사이에는 사범대. 인문대. 약대의 공동시국성토 및 교내시위 철야토론 대회가 있었으며 참가인원은 약 1500명. 주제는 "비상계엄은 왜 해제되어야 하는가?" 였다고 알고 있으며 저는 참석치 않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2. 5월 8일 15:00 ~ 5월 9일 10:00시 사이에는 법대. 경영대. 미대의 공동시국성토대회 및 자유언론 쟁취대회가 ~~있었고~~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개최되었고 이 때

(수사지도과)

송건호 씨와 해직기자들이 참가하였다

고 알고 있으며 학생회관에서는 철야토론회

가 약 1000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것으

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제가 참석치

않아 알수 없읍니다.

1. ① 5월 9일 15:00시 ~ 5월 10일 10:00

사이에 공대·음대의 공동 시국성토 및 교

내시위. 철야토론회가 있었고 참가인원은

약 1500명 주제는 「비상계엄 해제」와

「정부개헌 반대」 등이였다고 알고 있으며

농성장은 학생회관이였읍니다.

② 같은날 17:00 부터 문무대에 입소할

1학년생 위문이 있었으므로 총학생회장은

같은날 17:00 부터 고대 학생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던 서울시

내 대학 총학생회장단회의에 참석할 수

(수사지도파)

없었으므로 학생회장 부회장 이홍동과 제가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회의는 5.9 17:00시~5.10 05:00시 사이에 고대 학생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서울大. 고대. 연대 이대. 성대. 서강대. 건대. 숙대. 동국대. 숭전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외국어대. 전북대등 주로 서울시내 약 20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단이 모였는데 사회는 고려대 학생회장 신계륜이 맡았으며 이 회의에서 채택된 시국에 관한 제2차 공동 성명서의 초안도 고려대학교에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역시 "비상계엄 해제" "정부개헌 중지" "언론자유보장" 등이었습니다.

이때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총학생회장들이 서울대에서 괜히 무책임하게 "14일 휴교령이 내리면 15일 오후 3시

영등포로터리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5월 2일 심재철이 발표하여 이 말이
휴교령에 관계없이 무조건 15일 가두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으로 와전되어 터무니없는
"15日 봉기설"이 나돌게 되었다고 공격했
읍니다. 그러나 휴교령이 내린경우 그다음
날 가두시위를 벌인다는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5월 2일 발표에는 별 이의가
없었고 강남. 강북. 강동지역의 학교들
끼리 모여 의논한 끝에 만일 휴교령
이 내리면 강남의 대학은 영등포로타리에
강북은 공덕동로타리, 강동은 청량리와
서울운동장의 2곳에 오후 3시 집결키로 결의
되었읍니다.

1. 5월 11일 15:00시 ~ 5월 12일 05:00시에
서울大학교 학생회관 소회의실에서 서울대

(수사지도과)

주최로 서울대·고대·연대·성대·서강대
건대·중앙대·외대·숭전대·명지대·국민대
이대·숙대·서울여대·성신여대·대유공전 등
주로 서울시내 약 25개 대학 총학생회장
단이 모여 회의를 열었으며 주최학교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심재철은 5월
9일 고대회의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고대
총학생회장 신계륜이 사회를 보았고 2명
이상 참석한 학교에도 발언권은 한 사람에
만 허용되었읍니다. 처음 서울大에서는
총학생회장 심재철·부회장 김학진
총대의원회 의장 유시민,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 등 4명이 참석하였으나 발언
권이 심재철에게만 있었으므로 저는 계속
해서 회의에 참석치는 않고 들락날락하
여서 자세한 회의의 전개는 알 수 없으

(수사지도과)

나 이날 회의는 내용상 심재철 신계륜 등이 주도하여 4개항의 결의사항이 채택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결의문은 5월 12일 04:00시 서울大총학생회장실에서 각자 들에게 배포되었읍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① 15일 가두시위설을 공식부인하고 교외시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 ② 申총리와의 T.V 생방송 대담을 제의. ③ 휴교령을 반대하며 휴교령이 내릴시 과감히 싸울것이라는 것. ④ 5.16. 15:00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전국대학 대표자회의 소집을 결의한다는 것이었읍니다.

1. ① 5월 12일 04:00시경 본부 학생처장실에서 제가 학생처장 이수성 교수를 만나 5월 11일 15:00시 ~ 5월 12일 05:00에 있었던 서울시내 총학생회장단회의 결과를 이야기 하고

15일 가두시위설을 부인하는 총학생회장단

회의 결의문을 전달하자 이수성교수는 문

교부 차관실로 전화를 건후 "문교부에서는

벌써 이 결과를 알고 있는것 같다"고

하며 이제 휴교령 걱정은 없어진 셈이라고

말한 적이 있읍니다.

② 5월 12일 15:00시 ~ 21:30 사이에는

사회대 자연대 가정대의 연합 시국성토

대회와 교내시위가 아크로폴리스 광장 및

교문에서 있었고 진행은 사회대 학생회장

유승호, 자연대 학생회장 배명수, 가정대

학생회장 김경미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저는 11일 밤 철야회의로

피곤해서 오후에는 학생회관 라운지 소파에

서 낮잠을 자느라 잤으므로 자세한 진행상

황은 모르나 주제는 「노동3권보장」「농민권익보장」

「문과고의 원인」 등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낮잠을 잔후 11:00부터 총대의원회 사무국실에서 *

사회대대의원회의장 유현오(사회3)
인문대 〃 조병식(3)
경영대 〃 송덕호(경영3)
법대 〃 이승관(법3)
사범대 〃 황원기(지학3)
공대 〃 윤치은(화학공학3)
자연대 〃 신영길(3)
약대 〃 유재하(제약3)
가정대 〃 황선유(3)
의대 〃 최병순(본과3)

등과 함께 총무부장 이 용화군으로 1학기(예산 총 1억1천만원 규모) 예산 편성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밤 9시경 총학생회장 심 재철이 저를
찾는다 하여 나가보니 총학생회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운영위원들이 허겁지겁
복도를 빠져나가고 있었고 총학생회장
(과 복학생 김 병곤 (당시 24))
심 재철은 저에게 「계엄군이 13일 00:00시
~03:00시에 수도권을 접수한다. 22112
휴전선 부근에 긴장이 있다. 이사실은 방송국
에서 확인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학생회
관 2층 라운지의 농성학생 뒷처리를 저에게
맡긴후 황급히 복도를 빠져나가셨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총대의원회 사무국실의
단과대학 의장들에게 전하고 의장단회의
를 해산시킨후 21:10경 학생회관 2층
라운지로 건너가 농성중이던 약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각 과별로

보아 [illegible] 11:30경에는 거의 해산시켰읍니다. 그때 저와 함께 학생들을 해산시킨 운영위원은 자연대 학생회장 배병규가 있었읍니다.

① 5월 13일 11:00 ~ 13:30 사이 교문앞에서는 훈육대를 회소하는 1학년 회소환영식이 개최되었는데 약 4000여명의 학생이 집결하였는데 연사들은 하나같이 12일 밤 계엄군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도 제대로 않은채 도망친 학생회간부의 비겁함을 비난했으며 다시한번 총학생회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읍니다. 이 때 연설을 잘 하는 김부겸이 다시 등장하여 "학생회가 잘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총학생회의 잘못이 아니고, 복학생들이

소위 동박을 잘못줄려서 그랬다고 말하여 총학생회를 다시한번 구제해주었으며 그의 말로 미루어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김부겸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나 추측됩니다. 그러나 폭락한 총학생회의 인기와 권위는 다시 세울수가 없었으므로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15일 학생총회에서 가두진출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발표하였읍니다.

#. ⑫ 이날 22:00부터 고대 학생회관에서 고대가 주최가 되고 역시 고대 총학생회장 신계륜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서울大·고대·연대·성대·서강대·건대·중앙대·외대·숭전대·명지대·국민대·한양대·아대·숙대·덕성여대·성신여대·서울여대·총신대·서울신대 등 7개 신학대학을 합쳐 약 25개 ~~신학~~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읍

나다. 이날 서울대 총학생회장실에서는
18:00부터 가두시위 실행여부를 놓고 운영위
원회가 열렸고 제가 고대에 가기위해
21:30경 학교를 나설때 분위기는 가두시위
쪽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총 학생회장 심재철는
최고책임자가 남아서 우리학교 거취를 오늘
밤에 결정하겠다면서 저 혼자 고대로
가라고 부탁하였읍니다. 그래서 저 혼자
22:30경 고대에 도착해보니 이미 회의
가 시작되어 있었고 제일먼저 연대 대
표(총학생회장 박상호가 아니었읍니다)가
13일 연대의 신촌및 광화문 가두시위 상황
보고를 하면서 "연대가 제일먼저 십자가
를 지셨으니 우리는 죽을때까지 싸웠으니
타대학도 이때 같이 가두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고대 총학생회장

신계륜은 "이미 내일(14일) 11:00시 고대도 가두시위를 결정해 놓았다"고 이야기 했으며 외대·중앙대·명지대 등 다수의 학교들이 언제든지 가두로 나올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대세가 그쪽으로 기울자 저는 학교를 떠날때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아무래도 가두로 나가야 할것 같으니 가보고 대세가 기우는대로 결정하고 오너라"고 지시한대로 "타대학이 모두 나간다면 우리는 15일날 가두로 나가겠다. 왜냐하면 14일은 입학년생들이 문무대 훈련의 피로를 씻느라 학교를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서울대도 15일에는 가두시위를 하겠다고 말하였읍니다. 뒤늦게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황 난옥이 너무 성급한 짓이라고 이견을 내놓았으나 연대쪽의

(수사지도과)

강한 반발과 이미 기울어진 대세때문
에 역시 가두시위를 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회의는 14일 05:00시에 끝났읍니다.

1. 05월 14일 07:00경 학교로 돌아와보니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총학생회장단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읍
니다. 그래서 저는

총학생회장 심재철 (사대 영어과 4)
부회장 김학진 (공대 조선공학 3)
인문대학생회장 노창준 (동양사 3)
사회대 " 유승호 (경제 3)
경영대 " 정철상 (경영 3)
공대 " 양점식 (3)
자연대 " 배명주 (3)

등이 있는데서 회의결과를 보고하자
운영위원들은 하나같이 "오늘 (14日) 나가면

휴교령이 내렸는데 내일(15日)까지 미룰수 없다며 총학생회장 심재철을 중심으로 교문돌파계획을 짰고 저는 약 10:30까지 눈을 붙였읍니다.(총여학생회장실소파에서)

②. 11:00시경부터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지휘아래 단대별로 아크로 폴리스에 집결한 인원은 7000명 정도였으며 고중 음대·미대는 낙성대쪽 후문, 공대·법대는 각가하듯이 학교를 나가 봉천동4거리. 신림동4거리에서 12:00경부터 집결시위하도록 되어있었고 가정대 여학생들은 공대공사장쪽에서 돌을 주어 날랐읍니다. 저는 이 학생총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13일밤 교대회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대다수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총학생회장인 심재철은 간단한 가두시위 선언을 하였읍니다. 심재철의

기독시위 [illegible]이 끝난 11:30경 저는 바이크를 들고 학생들이 교문으로 힘차게 뚫어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막 아크로 폴리스를 빠져나갈 즈음 학생처장 이수성교수가 총학생회장 심재철에게 "학생들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수의 주장대로 "교수들이 중재를 해서 학생과 경찰의 피흘림이 없는 평화적 가두시위를 할수 있도록 교섭할테니 30분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학생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하며 묵사하고 총학생회장 심 재철이 교문앞의 약 200여명의 전투경찰 지휘자에게 길을 비켜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11시 50분경부터 두대의 페퍼포그 차가 맹렬히 뿜어대는 페퍼포그와 최루탄터지는 소리, 최루탄 연기 자욱한 가운데 돌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약 40분간의 투석전 동안

무수한 돌멩이와 페퍼포그가 오간후 약 12시

30분경 경찰이 저지선을 풀어주었는데

부상자가 속출하자 (나중에 듣기로 약 30명

의 경찰이 부상당하였다 함) 교문에서의 저지

선을 하는수 없이 풀어준것으로 생각됩니다.

그후 신림4거리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으나

별 저항을 받지 않은채 독산동을 거치거나

대방역을 거쳐 14:30경에는 영등포

시장앞에 서울大생 5000여명, 영등포

역앞에 중앙대·숭전대등과 섞여 서울大生

약 3000여명이 집결하여 있었읍니다.

교문을 출발한후 외친구호는 "비상계엄해제"

"신현확, 전두환 퇴진" "정부개헌 반대" "언

론자유보장" "농민권익 보호" "서민생활 보호"

"노동3권보장" 등 5월 2일 총학생회 운

영위원회에서 각 단대별로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하나씩 나누어 준 구호인 "정의가" "흔들리지 않게" "회불" 등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③ 14:40경 학생 약 5000여명이 영등포 시장앞 도로에서 위와 동일한 구호. 노래를 외치며 연좌하고 있을때 학교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부총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사회대학장인 이현재교수, 인문대학장 민석홍 교수등 약 10명의 학처장들이 나타났고 약 40분간 연좌하는 동안 학생처장 이수성교수는 "교수들이 앞장설테니까 더이상 나가지 말고 평화적으로 귀교하자" 고 총학생회장 심재철군에게 말씀하셨으나 학생들사이에 "평화분으로라는 말이 퍼져있어 총학생회장 심 재철이 학교로 돌아간다고

메가폰으로 이야기하자 야유가 쏟아져 나오고 학생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심재철 학생회장은 애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광화문으로 가독시위할 것을 결정 발표하였읍니다. 저는 성대가 약해 영등포까지 오는 동안 목이 다 쉬어버렸으므로 학생들을 지휘할 생각을 포기하고 학생들 틈에 섞여있었고 영등포를 떠난후 그날은 교수님들은 다시 본 적이 없읍니다.

④ 15:30경 영등포를 출발한 서울대생은 1반씩 나누어 한패는 여의도 통과 마포를 지나 서울역으로 가두행진했고 나머지 1반은 제2한강교 신촌로타리를 거쳐 광화문으로 가려다 경찰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일단 굴레방에서 흩어졌다가 약 2,500여명이 마포를 돌아 서울역으로 행진하였읍니다. 이때

부터는 학생회간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19:00시 ~ 22:00시 사이 학생들은 서울大·건대·중앙대·이대·성대·동국대 등이 마구 섞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찰 저지선은 시청-광화문 사이만을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시청앞광장 ~ 서울역광장. 을지로 등을 오르내리며 "비상계엄해제" "전두환. 신현확 퇴진" 등을 외치며 기독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학생들틈에 섞여 있었는데 21:30이 가까와오자 초조해졌고 학생들을 해산시킬일이 걱정되었읍니다. 또 경찰은 마치 공격할 태세를 취하며 페퍼포그를 뿜기 시작했읍니다. 제가 얼핏 보니 경찰저지선에 서서 지휘하시는 분이 평소 서울대정문에 오시던 분(계급은 총경)이어서 제가 손을 흔들며 달려가서 인

사운 드리고 22:00 까지 해산시킬테니까
그동안은 페퍼포그를 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
자 응낙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22:00경
학생들을 (숫자는 알수 없었음) 시청앞 광장
프라자 호텔쪽에 집결시키되 애국가와
만세삼창을 하고 정확히 22:05에 완전
히 해산시킨 일이 있었읍니다

1. ① 5.15. 12:00 아크로폴리스에서는
약 5000명의 학생이 모인가운데 학생총회
가 열렸읍니다. 이 총회는 심재철이 14일
11시30분경 휴교령이 내리지 않으면 15일
12:00에 학생총회를 아크로폴리스에서 다시
열겠다고 발한데 따라 개최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회를 보았는데 강경론과
온건론이 대립하여 서로 양보할 기미가
없었으므로 저는 중립을 지켰읍니다.

방청석이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총학생회장 심재철, 부회장 김학진이 상의하여 16:00 서울역광장에 집결하는게 어떠냐고 제게 의견을 물어보았고 저는 좋다고 대답했으며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약 14:20경 "오후4시 서울역 집결"을 발표하고 학생총회를 마쳤읍니다.

이때 체육부장 박명기(체육 3), 문예부장 구본형철(공대 전산 3) 등은 학생처장 이수성교수의 허락을 얻어 방송차를 마련하고 그것을 확인하러 학생처장실에 올라가서 이수성교수를 만났는데 그것이 약 15:40정도 되었을때였고 이수성교수가 늦었으니 내차를 같이 타고 가자고 해서 운전기사, 처장, 심재철 그리고 제가 같이 학생처 승용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로 갔는데 서울대생들이 어디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학생처장 이수성교수에게 "높은데 올라가서 찾아봅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수성교수가 심재철과 저를 데리고 대우빌딩 21층의 어떤 사무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저희학교 학생들이 역광장에 있음을 발견한 심재철과 저는 학생처장님과 헤어져 역광장으로 내려왔읍니다

② 서울역광장에 집결한 약 40.000여명의 서울대생은 이때부터 21:00시 해산때까지 계속 역광장에서 "비상계엄해제" "전두환 물러가라" "신현확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정의가, "흔들리지 않게" 등의 노래를 부르며 연좌만 하다가, 20:30경 서울大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서울역에 집결한 각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결정한 사항

을 발표한다면서 이의가 있드라도 따라 줄것을 당부한 후 각학교별로 귀교하거나 해산한다고 발표하였읍니다. 총학생회장들이 어디에 모여서 회의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으며 이어 심재철은 "다음단계의 행동은 오늘저녁 (15日 22:00시) 고대에서 총학생회장단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읍니다. 학생들에게 발표할때 발판으로 이용된것은 서울대학교의 마이크로버스였으며 이 마이크로버스에 방송기재를 싣고 갔었읍니다.

③ 이 발표에 따라 서울大生중 약 2000여명은 21:00경 서울역을 출발하여 동일한 구호를 외치면서 용산. 노량진. 장승백을 경유 야간 가두시위를 벌렸고 24:00시가 다되어서야 봉천동고개를 넘어

학교에 도착했읍니다. 총장님의 지시인지 학생처장님의 지시인지는 알수 없으나 노량진역 못미쳐 약 5대의 스쿨버스가 대기하고 있어 여학생 일부와 낙오자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고 준비돼어 있던 라면과 우유를 먹고 각과 사무실 혹은 도서관에서 취침한후 다음날 아침 모두 귀가하였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역광장에는 낮에는 약 5만의 학생 5만의 시민이 모여있어 농성하기에 괜찮지만 밤이되어 춥고 배고프고 시민들마저 다 귀가해버리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어서 일단 해산시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④ 이날 밤에 (22:00) 고대에서 열린 총학생회장단회의에서는 심재철 혼자 참석하였으므로 상세한 결과는 알지 못하며 별로

중요한 결정사항없이 16일 15:00부터의
崇實大에서 열릴 전국대학대표자회의로 미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5월 16일.

① 12:00경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학생활
동위원장 이홍동이 저에게 학생처장 이수성
교수가 사표를 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가보라고 하였읍니다. 이야기 인즉 15일
밤 서울역에서 학생들이 해산할때 이수성
교수가 내무부장관님과 협의해서 학생들을
해산시키려 했는데 15일밤 이수성교수가
학생들에게 평화적으로 해산하라고 했을때
"학생처장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불신감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많았고 또 실제로
高大 학생들이 귀교도중 경찰과 충돌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것이 사효의 이유였읍니다. 제가 처장
실에 올라갔을때 처장님은 총장실에 계셨
으므로 저는 총장 비서실에서 약 5분간
기다리다 처장님과 함께 학생처장실로
돌아왔읍니다. 그리고는 정작 사표에 대해
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16日은 가두
시위를 안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고
같이 교직원식당에서 점심으로 육개장을
먹은후 본부 앞에서 헤어졌고 이때 학
생처장 이수성 교수는 "자꾸 강경파에게
밀리지 말고 소신껏 학생들의 피를 흘리지
말고 활동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후
저는 이수성교수를 만난적이 없읍니다.
② 13:00시 ~ 15:00시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는 가두진출문제를 놓고 다시 학생총회
가 열렸으나 이틀간의 피로가 겹쳐 가두진출

하고자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으므로 사회및 진행을 맡아본 총학생회장 심재철 및 운영위원들의 주장대로 당분간 가두시위 없이 유인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할 것이 결의되었읍니다. 저는 이 회의에 참석지 않고 학생식당에서 쉬고 있다가 16:00시경 일찍 집으로 돌아갔읍니다.

③ 5.16. 15:00 ~ 5.17. 사이에 이화여대에서 열린 전국대학 대표자 회의에는 심재철과 이홍동이 참가하였고 저는 그후 위 두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한적이 없으므로 회의의 결과나 흐름 내용, 결정사항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읍니다. 단지 뉴스에 59개 대학 900여명 참석이라는 사실이 방송되었기에 알고 있을 뿐입니다

7. 5월 17일

① 10:00경 김병곤(복학생. 경제과 4)이 저를 찾아와 총대의원회 사무국실에서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지금 대세가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대에서 열리는 총학생회장단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지만 이 대세를 몰아 19일과 20일에도 가두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해 저는 "예, 알았읍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총학생회장이 돌아오면 이야기 해 보겠읍니다."라고만 대답하였읍니다.

② 11:00시 ~ 12:00 사이에

16일 학생총회에서 유인물로 홍보활동을 하려 했으므로 도서관과 IMC(교육매체제작소)의 인쇄기 사용을 허락받으러 교무처장님

고 학생처장님을 각각 교무처장실 학생
처장실에서 만나 부탁드렸는데 교무처장
님은 Y.M.C관이 교무처소관이고 원칙적으
로 교육매체를 제작하는데만 사용되게 되
어있으므로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고 이수
성 학생처장님은 학생처 소관인 도서관 인쇄
기에 대해서만 도서관장앞으로 공문을 발송
하여 협조토록하겠다고 약속하셨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12:50경 도서관에는 직원들
이 (토요일이라) 다 퇴근한 뒤여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총학생회 부회장인 김학진이 16:00
경 총장님을 공관에서 찾아뵙고 허락을 받아
YMC관의 마스터 인쇄기는 약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읍니다. 여기서 어떤
유인물을 인쇄하였는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며
복학생 이홍국, 황광우등이 거기에 관여

하였다는 것 밖에 모릅니다.

⊙. 원래 5.16.15:00부터 全南大에서 열린 전국대학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러 간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이 돌아오면 5월 17일 16:00부터 총학생회장실에서 앞으로의 방향수립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위 두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서 회의는 하지 못하고

총학생회 부회장 김학진 (조선공학3)

인문대 학생회장 노창준 (동양사3)

경영대 " 정철상 (경영3)

법대 " 이철수 (법3)

사범대 " 진영효 (교육3).

공대학생회장 양철식.

총여학생회장 이재인 (교육3)

[illegible]대 학생회장 김경미 (의류3)

문예부장 권 혁철 (공대 전산 3)

등과 같이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이대에서는 목순회의를 24시간 넘게 하느냐

면서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18시 25분경

이대쪽에서 익명의 학생(서울大生)으로부터

총학생회장단 검거소식이 들어왔으나 믿을

수가 없어서 조선일보 한국일보등에 집행부

실에서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별다른 소식을

얻지 못하였고 고 병익 총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이 수성 학생처장님은 출타중이어서 "혹시 연락

오면 학교로 전화주시라고 전해달라"고 댁에

부탁드린 후에 19:10 정도에 학생활동위

원장 이홍동군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본인

이 받지는 않았으며 누가 받았는지는 기억

이 나질 않으나 내용은 "이대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심재철의 검거여부는 알 수 없다"

는 것이었고 19:30경 이화여대의 평학생 두명이 도서관에서 목격했다면서 학생회장실에 찾아와서 접거소식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비슷한 시간에 총학생회장 부터 부사히 빠져나와 노량진에 있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19:10경 이 홍동의 전화를 받고나서 사실임을 확신하고 학생회관 각 방을 다니면서 전달해서 집행부실에 있던 학생들을 귀가토록 했고 학생활동위원회실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복학생 이해찬 이범영, 김병곤, 연성만, 심상완 외 3명정도 도합 8~9명이 있었는데 저는 소식을 전해주고 다시 총학생회장실로 돌아왔었는데 약 20:30~21:00시경 학생활동위원회실 ~~로 건너온 복학생~~에서 있던 복학생들이 총학생회장실에 들어와서 "사태가 매우

숨박한것 같으니 태연한 척 말고 빨리 피하자." 고 말하고는 자기들먼저 학생회관에서 빠져나갔읍니다.

그리고 나서 21:00시~22:00 사이 대부분의 운영위원 들이 빠져나갔고 20:10경 제가 학생처장 이수성교수의 전화를 받았을때 운영위원중 경영대 학생회장 정철상군과 공대부회장 안봉수 ~~[illegible]~~ 가 남아있고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의 법적의미를 학생들은 잘 모를테지만 어쨌든 빨리 피해서 나가라." "전화거는 곳은 문교부차관실이다" 는 내용의 전화를 학생처장 이수성교수님으로부터 받은 후 이 두사람마저 빠져나가고 저와 체육부 차장 문호준 (체육 2), 복학생 이흥주, 이흥국의 여동생등 4명이 총학생회장실에 남아있다가 23:40경 경찰에 연행

되었읍니다.

1. 유인물은 날짜별로 배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므로 따로 진술하겠읍니다.

① 저희 학교내의 등사시설은 총학생회에 수동식윤전기 1대, 등사기 2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편집실에 최소한 1개의 등사기가 있고 각 과마다 과에서 나오는 유인물이나 학생들의 주소록을 만들기 위한 타자기 및 등사기 수동식 ~~[illegible]~~ 윤전기 혹은 복사기가 있읍니다. 그리고 [illegible]이나 IMC의 인쇄기는 여태까지 학생활동에 쓴 적은 이번의 IMC 인쇄기 이용이 처음입니다.

이번 14日·15日 가두시위를 전후하여 배포된 유인물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시민여러분께 드리는글" "사실을 고발한다"
"물가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계엄하의 언론통제"
등 6~7종이 되나 그중 제가 알고있는
것은 이흥국(복학생, 법4) 황광우(복학
생. 경제과)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도(정치4)
사회부장 허남정(철학3) 등이 유인물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이번에 나온 유인물중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 박문식(경제4)
군에 의해 초안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유인물인쇄 및 배포는 총대의원회 결의문외에
는 저와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아는바는
없읍니다.

1. 위진술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1980. 6. 12

자술인 柳 [illegible]

치 안 본 3/1